

원광보건대학교, 외식조리과 ‘K-Move스쿨’ 호주·독일 해외 취업 성공



원광보건대학교 국제교류처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‘K-MOVE스쿨’ 사업을 통해 외식조리과 학생들이 호주와 독일로 해외 취업에 성공했다.

‘K-Move스쿨’ 사업은 정부로부터 교육 및 운영 과정을 위탁받아 실시되는 해외 산업체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재학생들의 글로벌 취업역량 강화 및 해외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된다.

원광보건대학교 K-Move스쿨 참여 학생은 35주간의 대학 내 사전교육(▲직무교육 ▲어학교육 ▲인성 등 필수교육)을 필수로 이수해야 자격이 주어진다.

이를 통해 원광보건대학교 외식조리과 학생 35명은 호주(25명)와 독일(10명)로 해외취업을 위해 지난 2월과 3월, 4월에 나뉘어 출국했으며 이들은 유명 외식업체에서 교육과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.

황화경 국제교류처장은 “K-MOVE스쿨 프로그램을 통해 어학 및 직무 역량 강화뿐 아니라 리더십과 배려, 직업윤리 등의 특성화된 교육과 해외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국제 통용성을 갖춘 차세대 핵심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”이라 밝혔다.

한편 원광보건대학교 ‘K-MOVE스쿨’을 통해 해외로 취업한 학생 수는 총 244명에 달한다./익산=임규창 기자

전북을 바꾸는 힘! 새전북신문 *무단전재-재배포 금지

지면 : 2022-04-07 12면

<http://sjbnews.com/741441>

<h1>전북연합</h1>	계재일자	계재면
	2022년 4월 7일	7면

원광보건대 해외 취업 성공

원광보건대학교(총장 백준홍) 국제교류처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'K-MOVE스쿨' 사업을 통해 외식조리과 학생들 35명이 호주와 독일로 해외 취업에 성공했다. 원광보건대학교 K-Move스쿨 참여 학생은 35주간의 대학 내 사전교육(▲직무교육 ▲어학교육 ▲인성 등 필수교육)을 필수로 이수해야 자격이 주어진다. 이를 통해 원광보건대학교 외식조리과 학생 35명은 호주(25명)와 독일(10명)로 해외취업을 위해 2022

년 2월, 3월, 4월 나뉘어 출국했으며, 이들은 스시무사, 마키모토, 스시롤 등 유명 외식업체에서 교육 및 실습 진행 및 근무를 하고 있다. 국제교류처장 황화경 교수는 "K-MOVE스쿨 프로그램을 통해 어학 및 직무 역량 강화뿐 아니라 리더십과 배려, 직업윤리 등의 특성화된 교육과 해외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, 학생들이 국제 통용성을 갖춘 차세대 핵심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"이라 밝혔다.

익산문공주기자
gongju6005@daum.net

<h1>전주일보</h1>	게재일자	게재면
	2022년 4월 7일	9면

원광보건대 외식조리과, 해외 취업 성과

'K-MOVE스쿨' 사업 통해 호주·독일 등 35명 취업

원광보건대 국제교류처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'K-MOVE스쿨' 사업을 통해 외식조리과 학생 35명을 호주와 독일 등 해외에 취업시키는 성과를 거뒀다.

'K-Move스쿨' 사업은 정부로부터 교육 및 운영 과정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해외 산업체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재학생들의 글로벌 취업역량 강화 및 해외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된다.

원광보건대는 K-Move스쿨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▲직무교육 ▲이학교육 ▲인성 등 35주간에 걸친 사전교육을 진행해 이들에 대한 자격 필수요건을 확립했다.

이를 통해 외식조리과 학생 35명은 지

난 2월 3월 4월 세 차례에 나눠 호주(25명)와 독일(10명)로 출국, 스시무사·마키모토·스시플 등 유명 외식업체에서 교육·실습·근무 중이다.

황화경 국제교류처장은 "K-MOVE스쿨 프로그램을 통해 이학 및 직무 역량 등 학생들의 해외 취업역량을 크게 높인 것이 이번 성과의 주요 요인이었다"며 "앞으로도 학생들이 국제 통용성을 갖춘 차세대 핵심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에 나서겠다"고 말했다.

한편 현재까지 원광보건대학교 'K-MOVE스쿨'을 통해 해외로 취업한 학생은 총 244명에 달한다.

/소재람 기자

<h1>전북금강일보</h1>	게재일자	게재면
	2022년 4월 7일	12면

원광보건대 외식조리과 학생들 'K-MOVE스쿨' 참여 결실

수료 학생 35명 해외 취업 성공

원광보건대학교 국제교류처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'K-MOVE스쿨' 사업을 통해 외식조리과 학생들 35명이 호주와 독일로 해외 취업에 성공했다.

'K-Move스쿨' 사업은 정부로부터 교육 및 운영 과정을 위탁받아 실시되는 해외 산업체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, 재학생들의 글로벌 취업역량 강화 및 해외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된다.

원광보건대학교 K-Move스쿨 참여 학생은 35주간의 대학 내 사전교육 △직무교육 △어학교육 △인성 등 필수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자격이 주어진다.

이를 통해 원광보건대학교 외식조리과 학생 35명은 호주(25명)와 독일(10명)로 해외취업을 위해 올해 2월, 3월, 4



원광보건대 K-Move스쿨'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해외취업에 성공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월 나눠 출국했으며, 이들은 스시무사, 마키모토, 스시롤 등 유명 외식업체에서 교육 및 실습 진행 및 근무를 하고 있다.

국제교류처장 황화경 교수는 "K-MOVE스쿨 프로그램을 통해 어학 및 직무 역량 강화뿐 아니라 리더십과 배려, 직업

윤리 등의 특성화된 교육과 해외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, 학생들이 국제 통용성을 갖춘 차세대 핵심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"이라 밝혔다.

/이종호 기자 event00@naver.com